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하반기부터 6개월간 16~18세 전체 여성청소년 2만2명 대상 월 1만1500원씩 총 6만9천원 상당 용품...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6~18세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저소득층 가정 가운테 생리대 구입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가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만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주시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제정했고, 시 교육청은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총 2만2명의 16~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1500원, 총 6만9000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협

의를 진행 중이며, 사회보장실협력이 완료된 후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여성청소년의 선호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해 생리용품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여 학생 보건위생 교육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됐다.

이승우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여학생들에게 보건위생교육 및 지원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여성청소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돼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의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의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 예정돼 있다.

/최영준 기자

# 당진교육지원청, 3인 3색 원격수업 레시피 연구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은 지난 20일 관내 초·중·고교 4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연수를 통해 '3인 3색 원격수업 레시피 2회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원격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원격 수업 내실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1년 5월 20일 현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당진 관내 7개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과 희망 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고대초 서희경 교사를 강사로 초빙, '다함께 즐거운 5학년 원격수업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해 3월부터 지금까지 강사

가 실천해온 온라인 아침 조회 활동, 온라인 그림책 읽기 활동, 실시간 쌍방향 교과 수업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업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음에 놀랐다. 평소,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연수를 통해 활용 가능한 것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교실에서 적용해 보아야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 원격 수업은 미래 사회에 일상적인 수업 방식이 될 것이다. 학생들과 소통이 있는 원격 수업 구현을 위해 선생님들께서는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진 기자

# 서천교육지원청,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은 지난 17일 장애학생 위기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은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전문가, 행동분석사, 특수교사로 구성되어 학생을 둘러싼 종합적인 생태학적 방법으로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실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장애학생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상시지원체제 마련과 행동중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

# 진천교육지원청, '생거진천 Edu-ON 대학생 봉사단' 지역발전 기여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은 방역을 위한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를 돕는 한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여 안전한 교육문화와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대학생들의 지원을 통한 '생거진천 Edu-ON 대학생 봉사단'을 구성했다.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활용해 도입한 본 봉사단은 우석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진천상산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주 2회 멘토-멘티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주 5회 방역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토-멘티 활동의 경우 개별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1:1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멘토링 활동의 경우 단순한 학습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되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줄이고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돌봄 취약계층 가정에 학습적·심리적·경제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구영 교육장은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시는 우석대 대학생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며, 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협약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4일 대전 관내 2개 대학(대전보건대, 배재대)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등을 위해, 2020년 5개 대학(우송대, 충남대, 카이스트, 한남대, 한밭대)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수과정을 운영해 지역 내 대학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한 데 이어, 추가로 2개 대학과 체결하는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는 지역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과정의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보건대(보건, 기초간호) ▲배재대(영화감상과 비평, 창의경영) ▲우송대(미용, 디자인콘텐츠) ▲충남대(생명과화학실험, 고급물리

학, 논술) ▲카이스트(화학실험) ▲한밭대(3D모델링·프린팅, 인공지능(AD)기초과정) ▲한남대(교육학, 심리학)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대학에서 14개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의 다과목 지도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협약 체결 대학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연계 대전형 고교학점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인적 자원 활용, 고교-대학연계 학생 강좌 개설, 진로·학업설계 관련 연수 과정 개발 등을 위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시교육청과 대학이 서로의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성장을 돕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 세종교육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강양희, 이하 세종교육원)이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과의존은 사회성 저하,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가 중요하다. 세종교육원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청소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매년 학령전환기인 초4, 중1, 고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웹기반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총 13,314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주의사용자 15.25%, 인터넷 위험사용자 1.67%, 스마트폰 주의사용자 10.39%, 스마트폰 과다사용자 1.29%로 진단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중순부터 상담·치료 등의 과의존 단계별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단계별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과다사용자 학생이 우울증,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 공존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추가심리검사를 병행하고, 전문상담사가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 전남교육청, 학교시설 통합관리 '일석이조' 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의 학교 시설관리 시스템이 기존 학교별 관리에서 지역 단위 통합관리로 전환된다.

기존 시설관리 직렬의 결원 확대에 따른 학교의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설관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시설관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순천, 영암, 강진 등 3개 지역 18개 학교(지역별 6개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연말까지 학교시설 통합관리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학교시설 통합관리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학교별 관리에 비해 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관리, 제조작업, 배수로 정비 등 학교 공통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업무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달여 동안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현장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후 첫 모니팅 회의에 참석한 도립중학교 김현 행정실장은 "처음엔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걱정했으나 실제 운영을 해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줘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오는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후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타 시·군 지역으로까지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별 시설관리의 경우 시설관리 직렬 미충원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결원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데도 채용업무 번갈, 고령자 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도진 전남교육청 총무과장은 "학교 시설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및 예산 운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외부 용역은 사회적 기업 및 재활단체에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배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발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4일 학교 안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익힘책(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했다.

이 워크북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협력해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가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워크북 주요 내용은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일상생활 갈등 해결, 학교 폭력 사안 교육적 해결, 또래조정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 워크북은 갈등을 조정해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루고 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 워크북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외부 전문가에 기대어 왔던 갈등 조정을 학교 구성원이 직접 시도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안 갈등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